

《素問·五藏別論》에 對한 研究

圓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柳太植 · 琴垞樹

I. 緒論

〈五藏別論〉은 〈太素〉에 卷六 〈藏府氣液〉과, 卷十四 〈人迎脈口診〉에 나뉘어 있고, 〈新校正〉에 “〈全元起注本〉에는 五卷에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며, 王氷에 의해 〈素問〉 제11편으로 編述되어 있으나, 〈甲乙經〉 卷一에 일부분이 散在되어 있으며, 〈類經〉에는 藏象類 卷三十一章 〈氣口獨爲五藏主〉와 藏象類 卷四二, 三章 〈奇恒藏府藏爲不同〉에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

〈五藏別論〉에서의 ‘五藏’은 五藏, 六府 및 奇恒府를 總稱하며, ‘別’은 ‘區別’ 한다는 뜻으로, 이들 사이의 機能上의 差異點을 구별하여 논하였으므로 이를 篇名으로 하였다. 藏과 府에 있어서 精과 氣를 간직하고 排泄하지 않아 “滿而不能實”한 것을 藏으로, 음식물을 傳化시켜 “實而不能滿”한 것을 府로 區別하였다.

〈素問〉의 처음 4편인 〈上古天真〉, 〈四氣調神〉, 〈生氣通天〉, 〈金匱眞言〉 등論에서는 주로 精·神·氣·血에 대하여 논하였고, 그 뒤 5편부터 10편까지의 〈陰陽應象〉, 〈陰陽離合〉, 〈陰陽別〉, 〈靈蘭秘典〉, 〈六節藏象〉, 〈五藏生成〉 등論에서는 藏·府·陰·陽에 대해서 논하였다. 그 뒤를 이은 本篇에서는 精氣를 貯藏하는 것이 藏이며 物質을 傳化하는 것이 府라는 것과 腦·髓·骨·脈·膽·女子胞의 여섯가지는 그 名稱은 府이지만 그 作用은 精·神·氣·血을 간직하는 일반적인 藏과 비슷하므로 奇恒府라고 하였다.

本篇에서 말한 氣口는 寸口로서 五藏六府

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나와 氣口에 변하여 나타나므로 이를 診察하여 五藏의 病을 알 수 있다. 임상에 있어서 반드시 望·問·聞·切의 四診을 모두 참조하여야 하고, 鬼神에 얽매이거나 鍼治療를 싫어하거나 病의 治療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 患者는 병도 쉽게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本篇의 요지이다.

본 편은 藏象과 診察·治療에 반드시 필요한 편으로, 현재까지 諸 醫書에 거의 대부분 인용되어 있으며, 그 문장이 생략되어 있고 古文으로 難解한 부분이 많아 各家의 註釋을 참고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주석가들의 견해가 相異한 부분이 많으므로 이들을 비교 고찰하고 本文의 취지에 합당한 註釋을 정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되어, 이에 저자는 〈五藏別論〉에 대하여 各家註를 比較考察하여, 原文의 內容에 가장 合當한 理論을 定立하고자 本 研究에 임하였다.

II. 研究方法

本篇을 內容別로 3章으로 나누고 原文과 註釋에는 懸吐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校勘·字句解·較註를 달고 直譯과 意譯을 하였다.

가. 原文은 王의 《珍倣宋版印本》¹⁾을 底本으로 하였고, 景岳의 《類經》²⁾, 任의 《黃帝內經章句索引》³⁾, 程의 《素問注釋

1) 王氷: 黃帝內經素問, 珍倣宋版印, 中華書局, 1972.

2)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匯粹》4)등을 참고하여 3章으로 나누었다.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朴5)의 《國譯類經》을 참고하였다.
 다. 校勘은 楊의 《黃帝內經太素》6), 林 등의 《新校正》7), 郭의 《黃帝內經素問校註語譯》8), 河北醫學院의 《黃帝內經素問校釋》9)을 參考하였다.

〈較註資料〉

번호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2	馬蒔	明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馬
3	吳崑	明	黃帝內經素問吳注	吳
4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素問集註	張
6	高世栻	清	素問直解	高
7	姚止庵	清	素問經註節解	姚
8	山東省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白話解	白話解
9	王琦等	198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10	郭靄春	1981	黃帝內經素問校註語譯	語譯
11	程士德	1982	黃帝內經素問匯粹	匯粹

라. 字句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한 풀과 訓을 取擇하였다.
 마. 較註는 아래 11種 文獻의 註釋들 가운데서 類似한 內容別로 모았으며, 모은 註 가운데 가장 適合한 것을 國譯하고, 그 原文들은 脚註로 하여 참고하도록 하였다.
 바. 直譯은 原文의 解釋에 充實하도록 하였다.
 사. 意譯은 含蓄된 뜻까지 理解되도록 敷衍國譯하였다.
 아.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校勘에 ‘)’, 字句解에 ‘()’, 較註에 ‘[]’, 引用文獻에 ‘《》’로 표시하였으며, 脚註는 ‘1),2),3)……’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다.

3)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III. 研究內容

第一章. 五藏·六府·奇恆府의 意味와 作用

【原文】

黃帝 問曰余聞方士(1)하니 或以腦髓(2)로 爲藏1)(3)하고 或以腸胃로 爲藏하고 或以 爲府(4)하야 敢(5)問更(6)相反[1]이나 皆 自謂是(7)[2]라하야 不知其道(8)하니 願聞

其說(9)하노이다 岐伯이 對曰腦髓 骨脈膽2)女子胞(10)此六者는 地 氣之所生也니 皆 藏於陰而象(11) 於地故로 藏而不 瀉하니 名曰奇恆 之府[3]요 夫3) 胃大腸小腸三焦 膀胱此五者는 天 氣之所生也니 其 氣象天故로 瀉而 不藏하고 此는

受五藏濁氣(12)하니 名曰傳化之府[4]요 此 는 不能久留(13)하고 輸瀉(14)者也5)라 魄4)門도 亦爲五藏使(15)[5]니 水穀이 不 得久藏(16)이라 所謂6)五藏者는 藏精氣7) 而不瀉也라 故로 滿(17)而不能實(18)[6] 이라하고 六府者는 傳化物(19)而不藏故로 實而不能滿也[7]니 所以然者8)는 水穀이 入口則胃實而腸虛로되 食下則腸實而胃虛라

4)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5)朴昞 譯: 國譯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4.
 6)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星文化社, 서울, 1986.
 7)林億·高保衡 등: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 北, 1966.
 8)郭靄春: 黃帝內經素問校註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 社, 天津, 1981.
 9)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故로 曰實而不滿滿而不實⁹⁾也라 하노이다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方士들에게 듣건데 어떤 사람은 腦髓로 藏을 삼고 어떤사람은 腸胃로 藏을 삼기도 하고 府로 삼기도 해서 굳이 물어보면 서로 틀리나 모두 자기가 옳다고 하여 그 이치를 모르니 그 설명을 듣기 원합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腦·髓·骨·脈·膽·女子胞 이 여섯가지는 地氣가 생하는 것이니 모두 陰氣를 간직하고 地氣를 본받았으므로 간직은 하되 쏟아내지는 않으니 奇恒府라 하고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 이 다섯가지는 天氣에서 생겨났으니 그 氣가 天氣를 본받았으므로 쏟아내지는 하되 간직하지는 못하고 이것들은 五藏의 濁氣를 받으니 傳化府라 하고 이들은 濁氣를 오래 머물게 할 수 없고 실어서 쏟아내는 것이다. 魄門도 오장의 使가 되니 水穀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精氣를 간직하되 쏟아내지는 못하므로 滿하기는 하되 實하지는 못하고 六府라고 하는 것은 食物을 傳送하되 간직하지 못하므로 實하기는 하되 滿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까닭은 수곡이 胃에 들어가면 胃는 實하나 腸은 虛하고 음식이 내려가면 胃는 虛하게 되므로 府는 實하나 滿할 수 없고 臟은 滿하나 實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校勘】

- 1) 《太素》에는 ‘爲藏’ 밑에 ‘或以爲府’의 四字가 더 있다.
- 2) 《太素》에는 ‘膽’ 字 밑에 ‘及’字가 더 있다.
- 3) 《千金方》에는 ‘夫’ 字가 ‘若’字로 되어있다.
- 4) 《柯校》에, ‘魄’ 즉 ‘粕’이라 하였다.
- 5) 《太素》에 ‘者也’ 二字가 없다.
- 6) 《滑抄本》에는 ‘所謂’ 二字가 없다.

7) 《太素》와 《甲乙經》을 引用하여 校訂한 《千金方》에도 모두 ‘氣’ 字가 ‘神’ 字로 되어 있다.

- 8) 《類經》에는 ‘所以然者’ 四字가 없다.
- 9) 《明抄本》과 《太素》에는 ‘滿而不實’의 四字가 없다.

【字句解】

- (1) 方士(방사); 醫術에 從事하는 사람으로 의사를 말함, 方; 의술방
- (2) 腦髓(뇌수); 腦는 머리속의 뇌를 말하고, 髓는 온몸의 뼈를 주행하는 骨髓를 말한다, 腦; 머리골뇌, 髓; 골수
- (3) 藏(장); 오장장, 臟의 古字
- (4) 府(부); 육부부, 腑의 古字
- (5) 敢(감); 구태여감
- (6) 更(갱); 다시갱
- (7) 是(시); 옳을시
- (8) 道(도); 理也, 이치도
- (9) 說(설); 論也, 논할설
- (10) 女子胞(여자포); 子宮也, 胞; 태보포
- (11) 象(상); 法也, 본받을상
- (12) 濁氣(탁기); 飲食物 및 飲食物이 變化하여 생긴 產物로서의 糟粕·水分
- (13) 留(류); 止也, 머무류
- (14) 輸瀉(수사); 糟粕·水分 등을 이동하여 보냄, 輸; 보낼수
- (15) 使(사); 役也, 부릴사
- (16) 藏(장); 간직할 장.
- (17) 滿(만); 盈實也, 가득할 만, 일정 한도를 유지하며 내용물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용적이 변하지 않고 가득한 것
- (18) 實(실); 虛之對也, 찰실, 내용물의 변화로 그 용적이 변화하여 꽉찬 것
- (19) 傳化物(전화물); 化物의 傳送으로 飲食物의 消化, 吸收, 傳送作用

【較註】

【1】更相反: 匯粹는 “更은 變의 뜻이니, 更相反은 곧 바뀌어서 서로 相反되는 說明

을 한다.10)”라 하였다.

【2】皆自爲是: 張은 “무릇 物件을 간직 한다는 것은 대개 藏府 모두로 이름할 수 있으므로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였다. 11)”라 하였다.

【3】奇恒之府: 王은 “腦·髓·骨·脈은 비록 이름은 府이지만 神藏과 더불어 表裏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膽은 肝과 합하나 六府가 傳瀉 하는 것 같지 아니며, 胞는 출납하나 받아 들이는 것은 精氣이고, 내보내는 것은 胎兒이니 胎兒가 나가는 것을 火가 極하여 生한 것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出納하는 작용이 六府와는 다름이 있어 간직하기는 하되 내보내지는 않으니 奇恒府라 하였다.12)”고 하였고, 馬는 “腦·髓·骨·脈·膽·女子胞가 모두 陰을 간직하여 地를 形象한다는 것은, 온갖 臟腑사니를 간직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땅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니, 이 여섯가지는 主로 간직하기만 하고 내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地를 形象하였다고 하고, 그 藏을 奇라고 하는 것은 그 藏이 짝이 없이 홀로 존재하면서 또 恒常 變하지 않기 때문에 奇恒의 府라 한다.13)”고 하였다. 張은 “땅은 閉藏과 上升을 主管하고 하늘은 施化와 下降을 主管하니 사람의 藏府와 形骸는 天地陰陽의 氣에 相應하는데, 이 여섯가지는 傳化의 府와는 다르므로 奇恒의 府라 말한다.14)”라 하였다. 景岳·匯粹·白話解·語譯은 “膽은 六府의 하나이면서 홀로 간직하여 배설하지 아니하여 다른 傳化하는 府와 다르다. 女子胞는 子宮을 말하는데(子宮이 이것인데) 精氣를 出納하면서 胎를 孕하는 것이 奇異하므로 이 여섯을 모두 奇恒府라 부른다. 奇는 다르다는 것이요 恒은 平常(일반적인 것)을 말한다.15)”라 하였고, 高는 “여섯개는 陰을 간직하여 땅을 본받기 때문에 간직하되 내보내지는 아니하니 이 腦·髓·骨·脈·膽·女子胞의 여섯가지를

藏이라고도 하고 혹 府라고 하나 역시 六府의 傳化하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奇恒의 府라 이름한다. 奇는 다르다는 것이요 恒은 平常을 말하니 보통의 府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는 方士가 腦髓로서 藏이라하고 혹은 府라고도 한 까닭이다.16)”라 하였다.

【4】傳化之府: 王·匯粹는 “水穀이 들어와서 이미 糟粕으로 변하면 排泄되어 오래 머물지 못한다. 다만 그 안에 오래 머문다

11) 張: “凡藏物者는 皆可名藏名府故로 皆自以爲是也라”

12) 王: 腦髓骨脈은 雖名爲府나 不正與神藏으로 爲表裏하고 膽은 與肝合而不同六府之傳瀉요 胞雖出納이나 納則受納精氣하고 出則化出形容하니 形容之出을 謂化極而生이나 然이나 出納之用은 有殊于六府故로 言藏而不瀉요 名曰奇恒之府也라

13) 馬: “腦髓骨脈膽女子胞는 皆所以藏陰而象乎地는 蓋藏垢納汚者莫如地라 六者는 主藏 而不瀉하니 此所以象地也요 其藏爲奇하고 無所與偶而且有恒不變하니 名曰奇恒之府 라”

14) 張: “地는 主閉藏而上升하고 天은 主施化而下降하니 言人之藏府形骸도 應象天地陰陽之氣라 此六者는 與傳化之府로 不同故로 名曰奇恒之府라”

15) 景岳: “膽은 居六府之一이로대 獨其藏而不瀉하야 與他府之傳化者로 爲異요 女子之 胞는 子宮이 是也니 亦以出納精氣而成胎孕者로 爲奇故로 此六者를 均稱爲奇恒之府 라 奇는 異也요 恒은 常也라”, 白話解: “腦髓骨脈膽女子胞六者는 在人體의 作用에 都是密藏精氣하야 濡養機體하야 作爲機體活動의 資源하니 由於他們의 作用이 是藏精 氣而又管機體의 生活的이 恰好象徵著하야 地의 生育萬物이라. 同時에 他們은 只是把 精氣輸送於臟腑之間하야 而不排泄體外하니 這是不同於傳化之府의 地方일세 所以叫他們爲奇恒之府라”, 語譯: “腦髓骨脈膽女子胞 這六者는 是稟承地氣而生的하야 都能貯藏陰質하야 就像大地包藏萬物一樣하니 所以他們의 作用是藏而不瀉하니 叫做奇恒之府 라”

16) 高: “六者皆藏于陰而象于地故로 藏而不瀉하니 此腦髓骨脈膽女子胞六者를 所以名藏 也요 或以爲府도 亦不如六府之傳化니 是名曰奇恒之府라 奇는 異也요 恒은 常也니 言異于常府也라 此는 方士가 以腦髓爲藏 而或以爲府也라”

10) 匯粹: “更은 變也니 更相反은 卽改變爲相反的說法이라”

고 해도 바로 변화한 것은 실어 날라서 이전에 변화한 모든 것은 내보내었으니 傳化의 府라 한다.17)라 하였고, 馬는 “이것들은 五藏의 濁氣를 받아 傳化하므로 이들은 傳化의 府라 한다.18)”라 하였으며, 張은 “藏은 陰이 되고, 地도 陰이 되니, 地의 濁氣는 天으로 올라가고, 天은 이것을 받아 다시 아래로 내리므로 傳化의 府라 하고 天氣는 施化를 主宰하기 때문이다.19)”라 하였고, 高는 “胃大腸小腸과 三焦膀胱의 다섯은 수곡을 전도하여 변화하여 나가게 하니 天氣로 부터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 그 氣가 하늘을 덮었고, 내보내되 간직하지 않는다. 藏이라고 하는 것은 五臟의 濁氣를 받으나 간직하지 않는 것이다. 腑라고 하는 것은 보내어 배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方士들이 腸胃를 혹은 藏이라하고 혹은 府라고 하는 까닭이다. 20)”라 하였다.

【5】魄門亦爲五藏使水穀不得久藏： 王은 “魄門은 肛의 門이요 안으로 肺와 통하기 때문에 魄門이라 한다. 이미 化한 物質을 받아서 五藏의 시키는 바가 된다. 水穀이 오래 貯藏되지 않는다21)”고 하였고, 馬는 “魄門은 肛門이라. 肺가 魄을 藏하고 肛門은 위로 大腸과 통하고 大腸과 肺는 表裏가 되는 까닭에 魄門이라 부른다. 魄門은 五臟의 부림을 받으나 水穀이 아래로 내려와서 역시 貯藏되지 못하니, 傳化府와 比較하여 무슨 다른 점이 있겠는가.22)”라 하였고, 景岳은 “魄門은 肛門이다. 大腸은 肺와 表裏가 되는데 肺는 魄을 간직하며 氣를 主管하고 肛門이 잘 지키지 못하여 氣를 잃으면 氣가 꺼져서 神이 사라지게 되므로 魄門이라 하니 오로지 이것만은 아니다. 여러 府의 糟粕이 진실로 그 排泄함으로 말미암아 藏氣의 升降도 調和롭게 되니 五藏의 使가

된다.23)”고 하였고, 張은 “魄門은 肛門이니 위로 肺와 合하므로 魄門이라 한다. 五藏의 濁氣는 이것으로부터 나가니 五藏의 아래의 심부름꾼이다. 腸胃의 腐熟된 찌꺼기는 이로 인해서 瀉出되기 때문에 水穀이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24)”라 하였고, 高·今釋은 “魄門은 大腸의 肛門이라. 大腸은 肺의 府가 되니 魄門이라 이름한다. 六府가 五藏의 輸瀉가 되니 魄門도 역시 五藏의 使가 된다. 이미 五藏의 使가 된즉 腸胃의 水穀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니 이로써 魄門은 藏府와 合하여 傳使가 된다고 한다. 25)”라 하였고, 白話解·語譯은 “肛門으로

18) 馬: “此即受五藏之濁氣而傳化之하니 名曰傳化之府라”

19) 張: “夫藏爲陰이요 地爲陰이니 地之濁氣는 升于天하고 天受之而復降于下故로 名曰 傳化之府니 天主施化也일새라”

20) 高: “胃大腸小腸以及三焦膀胱 此五者是 傳導水穀하야 變化而出이 猶之天氣之所生也라 從上而下故로 其氣象天하고 從上而下故로 瀉而不藏이라 若以爲藏은 此受五藏濁 氣로되 受而不藏者也라 若以爲府는 則名曰變化之府니 則輸瀉者也라 此方士以腸胃爲 藏而或以爲腑也라”

21) 王: “魄門은 謂肛之門也니 內通於肺故로 曰魄門이요 受已化物則爲五藏行使라 水穀이 亦不得久藏於中이라”

22) 馬: “魄門者는 肛門也니 肺藏魄하고 肛門은 上通于大腸하고 大腸은 與肺로 爲表裏 故로 亦可稱之曰魄門이라 此魄門者는 亦爲五藏之使니 水穀下此나 亦不能藏者也니 較之傳化之府에 何以異哉리요”

23) 景岳: “魄門은 肛門也라 大腸은 與肺로 爲表裏라 肺藏魄而主氣하고 肛門失守則氣陷 而神去 故로 曰魄門이라 不獨是也라 雖諸府糟粕이 固由其高而藏氣升降도 亦類以調 故로 亦爲五藏使라”

24) 張: “魄門은 肛門也니 上合于肺故로 名魄門이라 五藏之濁은 從此而出하니 亦爲五藏 之下使라 腸胃之腐穢는 從此而瀉出 故로 曰水穀不得久藏이라”

25) 高: “魄門은 大腸之肛門也라 大腸爲肺府 故로 名魄門이라 六腑爲五藏之輸瀉而魄門 亦爲五藏使라 既爲五藏使則腸胃之水穀이 不得久藏하니 是魄門合臟腑而總爲之傳使 也”, 今釋: “魄門은 大腸之肛門也라”

17) 王: “言水穀入하야 已糟粕變化而泄出하야 不能久하고 久留住於中이라도 但當化已 輸寫하야 今故去已니 傳寫諸化故로 曰傳化之府也라”

水穀이 分化하여 나온 糟粕들이 모두 體外로 排出되니 五藏의 하인과 같은 것이다. 水穀이 分化된 糟粕은 여기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26)”고 하였고, 匯粹는 “魄門은 즉 肛門이다.27)”고 하였다.

【6】五藏者藏精氣而不瀉也故滿而不能實：王·張은 “精氣는 滿하고 水穀은 實하니 다만 오장은 精氣를 貯藏하기 때문에 滿而不能實이라28)”고 하였고, 白話解·語譯은 “五藏의 作用이 人體의 모든 機能을 維持하는데, 精氣를 藏하는 것은 人體를 滋養하는 것이므로 體外로 排泄되지 않는다. 다만 精氣가 비록 充分하게 갖추어져 있어도 物質이 充滿해서 充實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니 이러한 說로 인해 藏而不瀉 滿而不能實이라 한다.29)”라 하였고, 景岳은 “五藏은 精氣를 藏하고 精氣는 質이 맑으며 간직하고 내보내지 않으므로 다만 充滿하기는 하고 쌓여 불어나지는 아니한다.30)”라 하였으며, 馬는 “무릇 心肝脾肺腎의 五藏은 바로 五藏으로서의 精이 있고, 精氣를 藏하여 瀉하지 않으므로 滿할 수는 있어도 實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니 實하지 못하면 瀉하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31)”고 하였다. 高는 “다만 精氣를 간직할 뿐 糟粕을 배설함이 없으므로 滿而不實이라. 무릇 凝結된 精氣가 充足된 것을 滿이라 한다.32)”고 하였다.

【7】六府者傳化物而不藏故實而不能滿也：王은 “精氣를 간직하지 않고 단지 水穀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33)”라 하였고, 景岳은 “六府는 주로 食物을 전송하고 水穀의 質은 濁하여 傳化하여 간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쌓여 實함은 있으나 充滿함은 없다.34)”라 하였고, 張은 “水穀은 속에서 充實하고 오래 머물지 못하므로 實하기는 하나 가득하지는 않는다.35)”고 하였다. 馬는

“膽·胃·大小腸·三焦·膀胱의 六府는 傳化物이 貯藏되지 못하므로 일시적으로 實할 수는 있지만 가득차지는 못한다. 滿하지 못하므로 瀉하지 않을 수 없다.36)”고 하였다. 高는 “六府는 食物을 傳化하여 보내고 排泄하므로 實하되 가득차지 않는다.37)”라 하였다.

第二章. 氣口와 五藏과의 관계

【原文】

帝曰 氣口(1)[1]何以獨爲五藏主1)(2)[2] 오 岐伯曰胃者는 水穀之海(3)[3]로 六腑之大源2)(4)也니 五味入口(5)하면 藏3)於胃하야 以養五藏4)氣하고 氣口도 亦5)太陰也[6]니 是以로 五藏六府之氣味6)는 皆出7)於胃하야 變見於氣口[7]라 故로 五氣(4)入鼻하면 藏於心8)肺하니 心肺有病이면 而9)鼻爲之不利(6)也[8]니이다

27)匯粹: “魄門은 卽肛門이라”

28)王: “精氣爲滿하고 水穀爲實하니 但藏精氣故로 滿而不能實이라”

29)白話解·語譯: “五藏의 作用은 主持機體의 一切功能호대 們所儲藏의 精氣는 是爲了滋養 機體이니 所以 不泄於體外라 但精氣雖須充分的 儲備하야도 却不能像物質那樣的 集聚成 充實的體狀하니 因此說로 們是 藏而不瀉 滿而不能實이라”

30)景岳: “五藏은 主藏精氣하고 精氣는 質淸하야 藏而不瀉 故로 但有充滿而無所積實이라”

31)馬: “夫謂心肝脾肺腎爲五藏者는 正以五藏各有精하고 藏精氣而不瀉故로 雖至于滿 而 不至于有所實하니 唯不實卽不至于有所瀉也라”

32)高: “但藏精氣하고 無有糟粕 故로 滿而不能實하니 蓋凝結之精氣充足則曰滿이라”

33)王: “以不藏精氣하고 但受水穀故也라”

34)景岳: “六府는 主傳化物하니……水穀은 質濁하야 傳化不藏 故로 雖有積實而不能充滿 이라”

35)張: “水穀充實于內 而不得久留故로 實而不能滿이라”

36)馬: “謂膽胃大小腸三焦膀胱爲六府者는 正以六府傳化物而不藏故로 一至于實而不能有所滿이요 惟不能滿은 卽不能不有所瀉也라”

37)高: “若六府者는 傳化食物하고 輸寫不藏 故로 實而不能滿也라”

26)白話解·語譯: “是排泄의 水穀과 分化出의 糟粕은 均由此排出體外하니 好像是五藏의 下 屬一樣이라 水穀分化의 糟粕은 是不能常期停留於此處라”

【直譯】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어찌서 氣口만이 五藏을 主宰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胃는 水穀의 海요 모든 六府의 根源이니 五味가 口에 들어가면 胃에 저장되어 五藏의 氣를 기르고 氣口도 太陰이므로 五藏六府의 氣와 味는 모두 胃에서 나와서 氣口에 변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五氣가 코에 들어가면 心肺에 저장되니 心肺에 病이 들면 코의 기능이 예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校勘】

- 1) 《太素》에는 ‘主’ 밑에 ‘氣’ 字가 더 있다.
- 2) 《太素》에는 ‘大’ 밑에 ‘源’ 字가 없고, 《類說》에는 ‘大’ 字가 없다.
- 3) 《難經·一難》의 虞注引文에는 ‘藏’ 위에 ‘以’ 字가 더 있다.
- 4) 《太素》와 《類證活人書》에는 ‘五’ 밑에 ‘臟’ 字가 없다.
- 5) 《柯校》는 ‘亦’은 ‘手’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 6) 《明抄本》과 《類說》에는 ‘氣’ 밑에 ‘味’ 字가 없다.
- 7)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出’이 ‘入’ 字로 되어있다고 했다.
- 8) 《類說》에는 ‘於’ 밑에 ‘心’ 字가 없다.
- 9) 《聖濟總錄》에는 ‘而’가 ‘則’ 字로 되어 있다.

【字句解】

- (1) 氣口(기구): 兩手 요골경상돌기의 內側으로 요골동맥의 診脈部位
- (2) 主(주): 宰也, 말을주
- (3) 水穀之海(수곡지해):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작용을 하는 胃를 말함.
- (4) 五氣(오기): 天氣의 風·熱·濕·燥·寒을 말함

(5) 不利(불리): 利는 鈍하다는 것과 反對되는 意味로 銳敏하게 작용하지 못함을 말함, 利: 銛也, 날카로우리

【較註】

【1】氣口: 王·匯粹는 “氣口는 寸口이며 脈口라고도 하니, 寸口으로써 氣의 盛衰를 살필 수 있으므로 氣口라고 하며, 脈의 動靜을 짚을 수 있으므로 脈口라 하니 모두 같다. 同身寸法으로 손의 魚際 뒤의 一寸이 바로 寸口다.38)”라고 하였고, 馬는 “氣口는 오른손의 寸口의 脈이니 즉 手太陰肺經의 太淵穴이다.39)”이라 하였다. 景岳은 “氣口의 뜻으로 그 이름이 세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手太陰肺經脈이니 肺가 모든 氣를 주관하여 氣의 盛衰가 여기에 나타나므로 氣口라 하고 그 둘은 肺에 百脈이 朝會하여 脈이 크게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脈口라 하고 그 셋은 脈이 太淵에서 나와 그 길이가 一寸九分이 되므로 寸口라 한다. 이름이 비록 셋이나 실제로는 하나일 따름이다.40)”라 하였고, 張·高는 “氣口는 手太陰의 양쪽 脈이다.41)”라 하였으며, 今釋은 “氣口는 寸口·脈口라 한다. 양쪽손의 橈骨內側의 요골동맥 부위이며 수태음폐경의 순행부위이다.42)”라고 하였다. 姚는 “寸關尺 總

38)王: “氣口則寸口也며 亦謂脈口니 以寸口可候氣之盛衰故로 云氣口며 可以切脈之動靜 故로 云脈口라 하니 皆同이라 取於手魚際後同身寸之一寸 是則寸口也라”

39)馬: “氣口者는 右手之寸口脈이니 卽手太陰肺經太淵穴也라”

40)景岳: “氣口之義는 其名이 有三이라 手太陰肺經脈也니 肺主諸氣하야 氣之盛衰見於 此故로 曰氣口오 肺朝百脈하야 脈之大會聚於此故로 曰脈口오 脈出太淵하야 其長一 寸九分故로 曰寸口라 是名雖三而實則一耳라”

41)張: “氣口는 手太陰之兩脈이라”, 高: “氣口는 兩手寸口之肺脈也라”

42)今釋: “氣口는 又稱寸口脈口라 指兩手橈骨頭內側橈動脈의 診脈部位로 屬手太陽肺經 經脈循行之處라”

稱이다.43)”고 하였다.

【3】水穀之海: 王·今釋·白話解·譯釋은 “사람에게는 4개의 海가 있으니, 胃는 그 중 하나인 水穀之海이다.44)”라 하였고, 高는 “水穀이 위로 들어가면 脈道가 곧 行하게 되므로 胃는 水穀의 海이다.45)”라 하였다.

【4】六府之大源: 王은 “水穀을 받아들여 四方을 營養하니 運化의 根本이 되기 때문에 六府의 大源이 된다.46)”라 하였고, 馬는 “脈이 비록 氣口에서 나타나나 실제로 根本은 脾胃에 있는데 胃는 足陽明이요 脾는 足太陰이니 足陽明은 六府의 先이 되고 足太陰은 五藏의 本이 되며 胃는 受納을 主宰하며 모든 水穀이 이로써 여기에 모이므로 六府의 大源이 된다.47)”라 하였고, 景岳은 “藏府의 屬性 陽은 府이고 陰은 藏이니 胃는 陽에 속하여 六府의 根本이 되므로 六府의 大源이라 한다.48)”라 하였다. 高는 “水穀이 胃로 들어가면 脈道가 곧 행하게 되므로 六府의 大源이다.49)”라 하였고, 白話解·譯釋은 “胃는 능히 水穀을 소화하여 精氣를 흡수함으로써 六府에 영양을 공급하니 이것이 바로 육부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50)”라 하였다.

【5】五味入口: 景岳은 “氣味가 化합에 있어서 땅에 있는 것은 味이고 五味는 입으로 들어와 胃에 저장되니 味는 陰이다.51)”라 하였다.

【6】氣口亦太陰也: 王은 “氣口는 同身寸法으로 손의 魚際 뒤의 一寸이니 氣口에서의 脈動의 징후가 바로 手太陰脈氣가 흐르는 것이므로 ‘氣口亦太陰也’라 한 것이다.52)”라 하였고, 馬는 “五味가 입으로 들어와서 胃에 저장된 후에 脾를 얻어 運化하니 오장의 氣가 자양받지 않음이 없게 되니, 足太陰脾와 手太陰肺는 그 氣가 본래 서로 소통이 되므로 氣口는 또한 手太陰이다.

43) 姚: “寸關尺之總名이라”

53)”라 하였고, 景岳·匯粹는 “氣口는 肺에 속하니 手太陰이다. 胃氣를 퍼트려 行하게 하는 것은 脾로 足太陰이다. <營衛生會篇>에 말하기를 ‘음식이 胃로 들어와서 肺로 전해지면 오장육부가 모두 氣를 받게 된다.’고 하였고, 厥論에 ‘脾는 胃가 그 津液을 行하게 하는 主體이다.’라 하였고, 經脈別論에 ‘음식이 胃로 들어오면 精氣가 넘쳐나서 위로 脾에 전해지고, 脾氣가 精을 퍼트리면 肺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胃氣가 반드시 脾로 돌아가고 脾氣는 반드시 肺로 돌아간 연후에 藏府營衛가 行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氣口가 비록 手太陰에 屬하나 실은 足太陰으로 돌아가는 바가 되어 ‘氣口亦太陰也’라 한 것이다.54)”라 하였다. 高는

44) 王: “人有四海하니 水穀之海則其一也라”, 景岳: “人有四海而胃居其一이니 是爲水穀之海이라”, 白話解·譯釋: “人食水穀하면 皆先入於胃니 因而胃就像匯聚水穀的大海 라”

45) 高: “水穀入胃하면 脈道乃行故로 胃者는 水穀之海라”

46) 王: “受水穀하야 以榮養四傍하니 以其當運化之源故로 爲六府之大源也라”

47) 馬: “脈雖見于氣口나 而實本之于脾胃也라 胃者는 足陽明也요 脾者는 足太陰也이니 足陽明은 爲六府之先이요 足太陰은 爲五藏之本이며 胃는 主受納하야 凡水穀以是爲 市하니 爲六府之大源이라”

48) 景岳: “藏府之屬은 陽爲府요 陰爲藏이니 胃屬陽而爲六府之本故로 云六府之大源이라”

49) 高: “水穀入胃하면 脈道乃行故로 胃者는 乃六府之大源也라”

50) 白話解·譯釋: “胃能消化水穀하야 吸收精氣以供應六府的營養하니 所以又是六府的本源이라”

51) 景岳: “氣味之化에 在地爲味하니 五味入口하야 藏於胃者니 味爲陰也라”

52) 王: “氣口는 在手魚際後同身寸之一寸하니 氣口之所候脈動者는 手太陰脈氣所行 故로 言氣口도 亦太陰也라”

53) 馬: “五味入口하야 藏于胃而得脾而爲之運化하니 致五藏之氣無不藉之以資養이니 則 是脾者足太陰也 肺者手太陰也 其氣本相爲流通 而氣口亦手太陰耳”

54) 景岳·匯粹: “氣口는 本屬太陰而曰亦太陰者는 何也오 蓋氣口屬肺니 手太陰也라 布行 胃氣則在於脾

“五味가 입으로 들어가면 胃에 藏하여져서 足太陰脾經의 轉輸를 받아 오장의 氣를 기르는데 이제 氣口가 오장의 主이고 氣口는 肺脈이므로 역시 太陰이다.55)”라 하였다. 白話解·譯釋은 “胃가 吸收한 水穀의 精氣는 직접 藏府로 전하여지지 못하니 반드시 먼저 脾로 전하여지고 다시 脾의 運化作用을 받아서 肺로 上輸되어진 후에 肺가 全身에 퍼트리게 되니 藏府의 機能이 완성되게 된다. 氣口는 즉 寸口니 肺의 部位로써 脾와 肺는 모두 太陰經이니 氣口가 太陰에 屬한다고 한다.56)”라 하였다.

【7】變見於氣口：王·馬는 “榮氣라는 것은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되니 음식이 胃에 들어가면 그 氣가 肺로 전하여지고 음식물의 精微한 물질은 肺氣를 따라 氣口로 운행되므로 변하여 氣口로 나타난다고 한 것이다.57)”라 하였고, 張은 “水穀이 胃로 들어가면 足太陰脾藏이 轉輸하는 것을 경유해서 四藏에 공급된다. 그러나 水가 胃로 들어가면·또한 手太陰肺藏의 通調를 경유해서 사방으로 퍼지고, 穀이 胃로 들어가면 脈으로 精이 스며들고 肺에는 모든 脈이 모여서 精을 皮毛에 실어 나르고 皮毛와 脈이 精을 合하여서 藏과 府로 氣를 運行하니 이 오장육부의 기미는 모두 胃에서 나와 변하여 기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氣口도 太陰이라 하는 것이니 足太陰脾는 水穀의 精을 실어 나르고 手太陰도 胃가 오장의 氣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이리므로 오장의 기는 모두 氣口로 변하여 나타나는 것이다.58)”라 하였다. 楊上善은 “胃는 水穀의 海이고 六府의 首長이니

五味로 五藏을 기른다. 血氣와 衛氣는 手太陰脈으로 運行되어 氣口에 이르니 오장육부의 機能은 胃氣가 와서 手太陰에서 만나서 氣口에서 나타나는 바이니 변하여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였다.59)”고 하였다. 高는 “오장육부의 기미는 처음에 오미가 입으로 들어가면 胃에 저장되고 이어서 脾氣가 전수하게 되니 氣味는 모두 胃에서 나와 經脈을 따라 변하여 氣口에 나타난다.60)”라 하였다.

【8】五氣入鼻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也：

景岳은 “氣味가 化합에 하늘에 있는 것은 氣이며 五味가 코로 들어와 心肺에 저장되니 氣는 陽이다. 코는 肺의 구멍이므로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61)”라 하였고, 高는 “脈道가 行하는 것

55)高：“凡五味入口하면 皆藏于胃하여 籍足太陰脾氣之轉輸로 以養五藏氣일새 今氣口爲 五藏主요 以氣口肺脈으로 亦太陰也라”

56)白話解·譯釋：“但胃所吸收水穀의 精氣却不能直接供應藏府하니 必須先輸之於脾하고 再經脾之運化上輸至肺하여 然後由肺分佈到全身하니 這才能完成對藏府의 供應作用이라 氣口即寸口니 爲肺의 脈位로 脾與肺均爲太陰經이니 所以說：氣口屬於太陰이라”

57)王：“榮氣之道는 內穀爲實이니 穀入於胃하면 氣傳與肺하고 精專者는 循肺氣行於氣口故로 云變見於氣口也라”，馬：“穀入于胃하면 氣傳于肺而肺氣行于氣口故로 云變見 于氣口也라”

58)張：“水穀入胃하면 由足太陰脾藏轉輸하여 以灌溉四藏이라 然이나 水入于胃하면 又 由手太陰肺藏之通調四布요 穀入于胃하면 滲精于脈이로대 肺主百脈輸精于皮毛하고 毛脈合精하여 手太陰도 亦爲胃以養五藏氣라 是以로 五藏之氣는 皆見于氣口也라”

59)楊上善：“胃는 爲水穀之海요 六府之長이니 出五味以養五藏이라 血氣衛氣는 行手太陰脈하여 至于氣口하니 五藏六府善惡은 皆是胃氣所將而來會于手太陰하고 見于氣口 故로 曰變見也라”

60)高：“五藏六府之氣味는 始則五味入口면 藏于胃하고 繼則脾氣轉輸면 氣味皆出于胃하 야 循經脈而變見于氣口라”

61)景岳：“氣味之化에 在天爲氣요 五氣入鼻하여 藏於心肺者니 氣爲陽也라 鼻爲肺之竅 故로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라”

로 足太陰也라 按營衛生會篇에 曰穀入於胃하여 以傳於肺하면 五藏六府 皆以受氣라 厥論에 曰脾主爲胃行其津液者也라 經脈別論에 曰飲入於胃이면 游溢精氣 하야 上輸於脾하고 脾氣散精하면 上歸於肺라 然則胃氣必歸於脾하고 脾氣必歸於肺하야 而後行於藏府營衛이라하니 所以氣口雖爲手太陰이나 而實即足太陰之所歸故로 曰 氣口亦太陰也라”

은 胃의 氣味에 근본을 두고 아래로 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장의 氣가 비로 들어 가면 心으로 부터 肺로 가므로 心肺에 저장된다. 예를 들어 心肺에 病이 있으면 콧구멍이 예민하지 못하게 된다.⁶²⁾”라 하였다.

第三章 治病의 四要

【原文】

凡治病에 必察其下1)[1]하고 適(1)其脈2)[2]하며 觀其志意(2) 與其病也3)[3]라 拘4)(3)於鬼神者는 不可與言至德5)(4)[4]이요 惡(5)於鍼石(6)者는 不可與言至巧(7)[5]요 病6)不許治者는 病必不7)治은 治之라도 無功矣[6]니다

【直譯】

病을 치료할 때에 반드시 대소변을 살펴 고 脈象을 헤아려보며 그 사람의 意志가 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鬼神에 구애된 사람과는 지극한 치료에 대해 말할 수 없고 鍼石을 싫어하는 사람과는 至巧를 말할 수 없고 병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병이 반드시 치료되지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校勘】

- 1) 《太素》에는 ‘下’ 앞에 ‘上’ 字가 더 있다.
- 2) 《太素》에는 ‘脈’ 밑에 ‘候’ 字가 더 있다.
- 3) 《太素》에는 ‘也’가 ‘態’ 字로 되어 있다.
- 4) 《太素》에는 ‘拘’ 위에 ‘乃’ 字가 더 있다.
- 5) 《太素》에는 ‘德’이 ‘治’ 字로 되어 있다.
- 6) 《太素》에는 ‘病’ 위에 ‘治’ 字가 더 있다.
- 7) 《太素》에는 ‘必不’이 ‘不必’로 되어 있다.

62) 高: “脈道之行은 本于胃之氣味하야 由下而上故로 五藏之氣入鼻하야 從心而肺故로 曰藏于心肺하니 如心肺有病하면 而鼻竅爲之不利也라”

【字句解】

- (1) 適(적): 察也, 살필적
- (2) 志意(지의): 마음에 記憶하고 있는 것을 ‘意’라 하고, 意가 存在하는 것을 ‘志’라 한다 하였으니 여기에서는 精神狀態로 보는 것이 옳다.
- (3) 拘(구): 執也, 얽매일구
- (4) 至德(지덕): 最上의 德, 至極한 德의 뜻이나, 여기서는 醫學의 理致를 말한다.
- (5) 惡(오): 憎也, 미워할오
- (6) 鍼石(침석): 毫鍼과 砭石
- (7) 至巧(지교): 最上의 技巧로 여기에서는 鍼石의 效能을 말함

【較註】

【1】必察其下: 王은 “‘下’는 눈에 보이는 것이 病症과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⁶³⁾”라 하였고, 馬는 “‘察其下’는 下二竅(대소변)의 소통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⁶⁴⁾”라 하였고, 景岳은 “下는 二陰을 말하니 二陰은 腎의 孔竅이고 胃家의 關門이다. 脈要精微論에 ‘脾胃가 運化를 못하고 泄瀉를 하면 이는 門戶가 約束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藏府가 그 기능을 유지하면 살고 상실하면 죽는다.’고 하였으니 대소변의 상태는 胃氣의 충실 여부를 판단하는 關鍵이고 온몸의 元氣가 안전한가 위태한가가 달려있으니 대소변의 상태를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⁶⁵⁾”라 하였고, 張은 “下는 腸胃에 水穀이 배출되는 상태를 말한다.⁶⁶⁾”라 하였고, 今釋은 “下는 대소변의 상태를 가리킨다.⁶⁷⁾”고 하였다. 白話

63) 王: “下는 謂目下所見可否也라”
 64) 馬: “察其下者는 察其下竅通否也라”
 65) 景岳: “下는 言二陰이니 二陰者는 腎之竅요 胃之關也라 脈要精微論에 曰倉廩不藏者는 是門戶不要也니 得守者는 生하고 失守者는 死故로 二便是爲胃氣之關鎖 而係一 身元氣之安危하니 此下之不可不察也라”
 66) 張: “下는 謂腸胃水穀之所出也라”
 67) 今釋: “下는 指大小便이라”

解는 “‘察其下’는 환자의 대소변과 부인의 月經 정상여부를 물어보는 것이다.68)”고 하였다. 高는 “魄門은 오장의 使가 되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래의 대변이 통하는가 막혔는가를 살펴야 한다.69)”고 하였다.

【2】適其脈: 王은 “‘適其脈’은 脈象의 虛實을 살피는 것이다.70)”고 하였고, 馬는 “‘適其脈’은 脈의 大小·滑濇·浮沈을 살피는 것이다.71)”라 하였다. 景岳은 “適은 測이다. 脈은 氣血이 먼저 運行되어야 형성되므로 寸口만을 취하여 吉凶의 徵兆를 결정하니 ‘平人氣象論’에 ‘인체에 胃氣가 없는 것을 逆이라 하고 逆한 사람은 죽는다’라 하니 脈에 胃氣가 없어도 역시 죽기 때문에 脈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72)”라 하였고, 張은 “手太陰肺經의 氣口脈을 살펴서 藏府氣의 虛實을 결정한다.73)”라 하였다. 高는 “氣口가 五藏을 主宰하기 때문에 病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氣口の 脈象을 살피야 한다.74)”고 하였다.

【3】觀其志意 與其病也: 王은 “意志의 정상여부와 병세가 깊고 열어서 치료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헤아린 뒤에 옛사람들의 치료법을 준수하여 이를 치료해야 한다.75)”라 하였고, 馬는 “환자에게 志意가 있으면 이를 관찰한 뒤에 그 병의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76)”고 하였고, 景岳은 “志意는 本藏篇에 ‘志意가 和順하게 되면 精神을 집중하여 망령된 생각을 하지말고 魂魄이 산만해지지 않고 後悔나 忿怒 등의 情緒 또한 발생하지 않고 五藏의 기능이 건전해지며 邪氣의 침습을 받지 않아 병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하였으니 이 志意는 神氣에 관계되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매어 있으니 이 志意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된다. 병에는 標本이 있으니 근본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요령을 잃게 되고,

68) 白話解: “察其下는 詢問如病人의 大小便과 及婦女の 月經是否正常이라”

병에는 眞症과 假症이 있으니 逆從을 알지 못하면 제앙에 이르게 되니 이것이 병의 원인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77)”라 하였고, 張은 “志意의 작용은 정신을 統制하고 魂魄을 거둬들여 밖으로는 인체가 寒溫의 기후변화에 적응하게 하고 안으로는 喜怒 등의 정서적인 자극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의 志意와 그 병의 발생원인을 관찰하여야만 한다.78)”라 하였고, 白話解는 “환자 정지의 좋고 나쁨과 기타 증상도 상세하게 묻고 검사하여야만 한다.79)”라 하였다. 高는 “志意가 방술과 맞나 맞지 않나와 그 병의 치료여부를 더욱 관찰해야 한다.80)”라 하였다.

【4】拘於鬼神者 不可與言至德: 王은 “지

69) 高: “魄門爲五藏使故로 凡治病에 必察其下하야 察其大便之通閉也라”

70) 王: “適其脈은 調適其脈之盈虛라”

71) 馬: “適其脈者는 調其脈之大小와 滑濇浮沈也라”

72) 景岳: “適은 測也라 脈爲氣血之先故로 獨取寸口하야 以決吉凶之兆니 如平人氣象論 에 曰人無胃氣 曰逆이요 逆者는 死라하니 脈無胃氣도 亦死라니 此脈之不可不察也라”

73) 張: “調適其太陰氣口之脈하야 以決藏府之氣라”

74) 高: “氣口爲五藏主故로 凡治病에 必適其脈하야 調適其氣口之脈象也라”

75) 王: “觀量志意之邪正及病深淺成敗之宜니 乃守法以治之也라”

76) 馬: “人有志意則審觀之然後에 與其病之可治與否也라”

77) 景岳: “志意者는 如本藏篇에 曰志意和則精神專直하야 魂魄不散하고 悔怒不起하야 五藏不受邪矣라 是志意는 關乎神氣而存亡係之하니 此志意之不可不察也라 病有標本 하니 不知求本 則失其要矣요 病有眞假하니 不知逆從 則及於禍矣니 此는 病因之不可不察也라”

78) 張: “志意者는 所以御精神하며 收魂魄하야 適寒溫和喜怒者也라 故로 當觀其志意與 其所受之病焉이라”

79) 白話解: “患者의 情志好惡과 以及其他的症狀도 都要作到詳細的詢問與檢査라”

80) 高: “更當觀其志意之尙方術與不尙方術과 與其病可治與不可治也라”

의가 바르지 못하면 祈禱하기를 좋아하고, 至德을 말하면 일마다 반드시 어긋나므로 더불어 지덕을 말할 수 없다.81)”고 하였고, 馬·匯粹는 “그 사람이 귀신에 얽매이면 기도에만 전념하고 근거없는 허황된 일에 眩惑되니 더불어 修身 養性하는 至德을 말하더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82)”라 하였다. 景岳은 陽의 靈을 神이라 하고 陰의 靈을 鬼라 한다. 張子가 말하기를 鬼神은 陰陽二氣의 타고난 기능이라 하였고, 程子가 말하기를 귀신은 단지 일개의 造化이니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乾,坤이 자리잡은 것이다. 雷霆으로 鼓動하고 風雨로 적셔주는 것이다. 그러하니 귀신은 곧 천지의 靈일 따름이다. 禍福이 생기는 것은 오직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요, 천지는 私心이 없으니 귀신을 어찌 속일 수 있으리요! 저 이치에 어두운 사람들이 귀신에게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허무한 것을 숭상하여 실제의 구제방법을 구하지 않으니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런 사람은 곧 함께 天人의 지덕을 논함에 반드시 믿지 않으니 또 어찌 더불어 道를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巫堂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는 것이 첫번째 不治라 하였으니 곧 이것을 말한 것이다.83)”라 하였고, 張은 “귀신에 얽매인다는 것은 祝由를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祝由의 방법은 精을 옮기고 氣를 변화시켜 나의 神으로써 神明에 통하게 하는 것이니 그 속에 지극한 道가 있는 것이다. 만약 오직 귀신을 섬기는 일에만 얽매이면 지극한 덕을 함께 말할 수 없다.84)”라 하였고, 今釋은 “至德은 의학의 이치를 말한다.85)”라 하였고, 匯粹·節解는 “醫道가 精微한 것이 至德이 되니 邪術에 眩惑되면 말해도 반드시 믿지 않는다.86)”라 하였다. 高는 “만약 方術을 숭상하고 귀신에 얽매이는 사람은 神道를 說教하

니 天人의 至極한 德을 더불어 말할 수 없다.87)”라 하였고, 白話解는 “어리석게 귀신을 믿는 사람은 무당을 믿고 의사를 믿지 않으니 의약으로 치료할 수 없다.88)”고 하였다.

【5】惡於針石者 不可與言至巧: 王·匯粹는 “치료를 싫어하면 침치료를 할 수 없으므로 훌륭한 技巧을 더불어 말할 수 없다.89)”라 하였고, 馬는 “치료를 싫어하는 사람은 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침석의 훌륭한 기교를 말하여도 기꺼이 따르지 않는다.90)”고 하였고, 景岳은 “침놓는 이치는 三才를 본받아서 음양과 기혈을 조화시켜 經絡을 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혈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터럭 만큼도 꺼리낌이 있어서는 안된다. 대개 침석의 지극히 정미한 이치를 말하나 혹 침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참으로 함께 훌륭한 치료

81)王: “志意邪則好祈禱하고 言至德則事必違故로 不可與言至德也라”

82)匯粹·馬: “彼拘于鬼神者是 專事祈禱하고 惑于渺茫하니 與言修身養性之至德이나 必不見信이라”

83)景岳: “陽之靈을 曰神이요 陰之靈을 曰鬼라 張子曰 鬼神者是 二氣之良能也라하고 程子曰 鬼神只是一箇造化니 天尊地卑야야 乾坤이 定矣라 鼓之以雷霆하고 潤之以風 雨是也라하니 然則鬼神者是 卽天地之靈耳라 禍福有因은 惟人自作일세 天地는 無私 하니 鬼神을 焉得而蔽之리오 彼昧理者是 不知鬼神不可媚 而崇尚虛無야야 不求實濟 하니 何益之有리오 若此者是 卽如論天人至德이나 必不見信하니 又何足與道哉아 故 曰 曰信巫不信醫一不治也가 卽此之謂라”

84)張: “拘于鬼神者是 欲其祝由而愈病也라 然祝由之道는 移精變氣야야 以我之神而通神明이니 有至道存焉라 若惟拘于鬼神之事하면 不可與言至德矣라”

85)今釋: “至德은 指醫學的道理라”

86)匯粹·姚: “醫道精微가 是爲至德이니 卽惑于邪면 言必不信이라”

87)高: “若尙方術而拘于鬼神者是 神道說教하니 不可與言天人至德이라”

88)白話解: “如迷信於鬼神的病人은 他是信巫不信醫的 就不可給以醫藥治療”

89)王: “惡於鍼石則巧不得施故로 不可與言至巧라”

90)馬: “惡于鍼石者是 謂針無益하니 與言鍼石之至巧라도 必不肯從이라”

기술을 말할 수 없다.91)”고 하였고, 張은 “침석을 쓰는 사람은 훌륭한 기교의 묘한 이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그러므로 침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훌륭한 치료기교를 말할 수 없다.92)”고 하였고, 今釋은 “至巧는 침의 효과를 말한다.93)”라 하였다. 高는 “방술을 숭상하고 침석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만이 2옳다고 여기니 침술의 훌륭한 기교를 말할 수 없다.94)”고 하였다.

【6】病不許治者 病必不治 治之無功矣: 王은 “마음에서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치료하면 그 사람이 반드시 죽고, 강제로 치료하더라도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나 효과가 없다고 한다.95)”라 하였고, 馬는 “병세가 위독하나 가벼히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치료를 할 필요가 없으니 치료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96)”라 하였고, 景岳·匯粹는 “이미 병이 발생한 후에 치료치 않고 병이 나기 전에 치료하는 것은 성인의 치료 방법이나 그 사람이 이미 병들었으되 오히려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특히 밝지 못한 偏見으로 이치를 믿음의 敦篤하지 못함이나 귀신에 얽매인다거나 침석을 싫어하는 무리가 모두 이러한 것들이다. 이미 서로 믿지 못하면 강제로 이끌어 치료함이 없지 않으니 어찌 효과를 얻으리요? 치료를 하여 치유됨이 있다 하여도 그렇지 않다고 함과 같으니 모두 또한 功이 없게 되는 것이다.97)”라 하였고, 高는 “귀신에 얽매어서 침석을 싫어하면 병이 있으나 치료를 허락하지 않으니 병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자는 그 병이 반드시 낫지 않게 되니 비록 치료해도 功이 없는 것이다.98)”라 하였고, 白話解는 “환자가 신앙에 빠져서 의사의 치료를 원치않으면 강제로 치료를 하면 심리적으로 공포에 떨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지게 되니 힘은 쓰나 功이 없다.99)”고 하였다.

【意譯】

黃帝께서 물으셨다. “내가 의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藏과 府에 대한 설명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腦髓로 藏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腸胃를 藏이라 하며 또 府라고도 하여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굳이 물어보면 모두 자기가 옳다고 하여 그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답하여 아뢰었다. 腦·髓·骨·脈·膽·女子胞 이 여섯가지는 地氣와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 모두 陰氣를 간직하고, 地氣의 작용과 같이 간직은 하되 쏟아내지는 않으니 奇恒府라 하는 것이고, 胃·大腸·小腸·三焦·膀胱 이 다섯가지는 天氣와 통하여 생성된 것이니 天氣의 작용과 같이 쏟아내지는 하되 간직하지는 못하며, 또한 이것들은 五藏의 濁氣를 받아 傳化하니 작용의 측면에서 말할때는 傳化府라 하는 것이다. 이들이 濁氣

92)張: “用鍼石者는 有至巧之妙道라 故로 惡於針石者는 不可與言至巧라”

93)今釋: “至巧는 指鍼石의 功效라”

94)高: “尙方術而惡於鍼石者는 自以爲是하니 不可與言鍼刺之至巧라”

95)王: “心不許人을 治之면 是其必死요 強爲治者라도 功亦不成故로 曰治之無功矣라”

96)馬: “病勢危篤이나 難以輕許者는 不必與治니 治之에 有何功哉리오”

97)景岳: “不治已病하고 治未病은 聖人之道이나 其有已病而尙不許治者는 特以偏見不明으로 信理不篤이니 如拘於鬼神하고 惡於鍼石之類가 皆是也라 既不相信하면 不無諗 주하야 強爲之治니 焉得成功이 리요 卽有因治而愈者도 彼亦猶謂不然이니 總亦屬之無功也라”

98)高: “凡此拘鬼神하고 惡鍼石하면 是有病而不許治也라 病不許治者는 其病必歸不治니 雖治之나 亦無功矣라”

99)白話解: “病人이 對醫生沒有信仰 而不願讓這個醫生治療의 하고 就不可勉强予以治療 니 恐박由於心理作用的影響 而降低療效하야 形成勞而無功이라”

91)景岳: “鍼石之道는 法三才而調陰陽하고 和氣血하야 而通經絡이라 故로 曰知機之道者는 不可掛以髮이라 蓋言其至精至微也나 而或有惡於鍼石者하니 誠不可與言至巧矣 라”

를 받아 전화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탁기를 오래 머물게 하지 않고 실어서 쏟아내는 것이다. 肛門은 오장의 부림을 받으므로 역시 수곡이 오래 머물 수 없다.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精氣를 간직하되 水穀化物을 내보 내지는 않으므로 그 容積의 변화가 없이 精氣가 충만한 것이고, 六府라고 하는 것은 수곡화물을 傳送하되 정기는 간직하지 않으므로 容積이나 부피는 변함이 있으되 정기는 충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은 수곡이 위에 들어가면 위는 가득차게 되나 장은 비어있게 되고 음식이 내려가면 腸은 가득차게 되고 胃는 비어 있게 되니 實하나 滿할 수 없고 臟은 滿하나 實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어찌서 氣口만이 五藏을 主宰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胃는 물이 모두 바다에 모이는 것과 같이 음식물이 모이는 곳이며, 六府 중에서 음식물을 가장 먼저 다루는 중요한 기관으로 음식물의 五味가 입을 통해 들어가면 胃에 담겨진 뒤에 五藏의 기를 길러 공급하고, 寸口인 氣口도 手太陰經上에 있으므로 足太陰脾의 기능에 의하여 表인 수태음경의 氣口로 변하여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천공의 五氣가 코에 들어가면 心肺를 따르기 때문에 心肺에 저장되니 예를 들어 心肺에 病이 들면 코의 기능이 예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병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四診을 시행해야 하는데 우선 人體의 上下, 즉 望診에 있어서 위로 顏色과 大小便 및 婦人의 月經異常與否를 살피고, 다음으로 맥상을 헤아려보며, 또한 그 사람의 精神狀態를 살피는데 그 意志가 병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귀신이나 무당의 말을 좇아 치료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는 자세한 치료 방법에 대하여 더불어 말할 수 없고, 두려움이나 의사에 대한 不信으로 말미암아 鍼石으로 치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침치료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습니

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 병의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 병이 반드시 낫지 않는데, 혹 치료되더라도 헛된 것입니다.

IV. 考察 및 結語

《素問》의 11편은 五藏別論이라 하여 藏과 府 그리고 奇恒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 내용은 1章에 그치고 있으며 2章과 3章은 氣口의 중요성과 진단의 要諦에 대한 논의가 있을 따름이다.

제1장의 “或以腦髓 爲藏 或以腸胃 爲藏 或以爲府”가 《太素》에는 “或以腦髓 爲藏 或以爲府 或以腸胃 爲藏 或以爲府”로 ‘或以爲府’ 四字가 더 있는데, 앞뒤 문맥이 對句를 이루기 때문에 《太素》의 내용이 옳다고 본다.

제1장의 奇恒府란 精氣를 간직하는 五藏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의 府와 다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五藏은 精氣를 간직하고 배설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奇恒府도 역시 精氣를 간직하고 배설하지 않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腦·髓·骨·脈·膽·女子胞 此六者 地氣之所生也 皆藏於陰而象於地故 藏而不瀉”에서 ‘藏而不瀉’는 ‘藏精氣而不瀉’라고 하여야 의미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膽은 膽汁을 배설하기 때문에 단순히 ‘藏而不瀉’라고만 한다면 틀린 말이 되며, 아울러 李梴의 《醫學入門》에서 “膽은 담즙이 나가고 들어오는 구멍이 없다.(無出入竅)”라 한 것은 해부학상 잘못 본 것이다. 그러나 奇恒府로서 膽의 기능으로 볼때 《素問·靈蘭秘典論》에 “膽은 中正의 官으로 決斷이 나온다.(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라 하여 정신작용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 하였으니 ‘藏精氣而不瀉’라 한다면 그 의미는 한층 더 명확할 것이다.

‘魄門’에 대하여 그 訓讀을 놓고 ‘박문’과 ‘백문’의 두가지 주장이 있다. 匯粹·丹

波元簡은 “魄은 粕과 통한다.(魄 粕通)”라 하였고, 《莊子·天道篇》에서 “古人들은 다만 糟粕일 따름이다.(古人之糟粕已夫)”라 하였으며, 司馬가 《音義》에서 말하기를 “腐熟된 飲食을 魄이라하고, 或은 糟爛을 魄이라 하고 또한 粕이라고도 한다.(爛食曰魄 一云糟爛爲魄 又作粕)”라 하여 ‘찌꺼박’의 의미로 ‘박문’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魄’에 대하여 王·馬·景岳·張·高·今釋은 모두 肺와 大腸의 相通관계를 引用하여 肺가 ‘魄(백)’을 간직한다는 것을 이유로 肛門을 ‘魄門(백문)’으로 보았고, 《東醫寶鑑》에 五藏과 관계되는 泄瀉가 있으며, 魄門은 五藏의 부림을 받기 때문에(魄門亦爲五藏使) 단순히 肛門의 의미로만 ‘魄(박)’이라 하는 것은 잘못이다. 五藏六府의 機能變化에 따라 魄門의 작용이 변화하므로 대표적인 藏器인 肺·大腸이 간직하는 ‘魄’과 연관하여 ‘魄門(백문)’이라 보는 것이 옳다.

歷代로 “實而不能滿 滿而不能實”에서 ‘實’과 ‘滿’의 의미에 대하여 자못 혼동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諸 註釋家들은 모두 한결같이 精氣가 응결되어 충족되는 것을 滿이라 하고, 飲食糟粕이 충족되는 것을 實이라고 하였으나 설명에 부족함이 있다. 滿은 내용물의 질과 양의 변화와 관계없이 그 容積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고, 實은 내용물의 질과 양의 변화에 따라 容積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氣口의 역할에 대해서는 諸家의 설명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위치에 대하여서는 異見이 있다. 馬는 “氣口는 오른손의 寸口의 脈이니 즉 手太陰肺經의 太淵穴이다.”라고 하여 氣口를 右寸部로 한정하였고, 景岳·張·高·姚·今釋 등은 “氣口는 手太陰의 양쪽 脈이다.”라 하여 모든 脈을 통괄하는 肺와의 연관성에서 양쪽 손의 肺經循行部位인 寸關尺을 총칭한다고 보았는데 景岳 등의

견해가 옳다.

氣口는 양쪽 요골동맥의 診脈部位로 이곳의 脈象으로 五藏六府의 변화를 살핀다. 이곳의 脈象變化는 胃의 變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는 現代醫學의 으로 증명되니 《이우주의 약리학강의100》에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면 그 종류나 양에 따라 위액이 분비되고, 위액의 분비에 따라 위에 분포하고 있는 미주신경이 직접적인 첫번째 자극을 받아 흥분하였을 경우를 예로 든다면 Acetylcholin의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 Acetylcholin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할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하여,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고, 심근수축력, 특히 심방의 수축력을 감소시키며 심장내 자극전도를 억제하므로 심박출량이 감소된다. 또한 혈관의 확장을 일으켜 혈압이 하강하게 된다. 평활근장기에 대해서는 위 및 장운동을 항진시키고 기관지근도, 수축시킨다. 수뇨관 및 방광의 압박근의 수축도 강력하게 하여 배뇨를 촉진한다. 분비선에 대해서는 침, 눈물 및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땀 분비도 항진시킨다.”라고 하였으니 飲食物을 攝取하면 胃에 간직되어 五藏의 氣를 기르므로 五藏六府의 氣味는 모두 胃에서 나오고 이것이 변하여 氣口에 나타난다고 한 말과 相通된다.

“故 五氣入鼻 藏於心肺 心肺有病而鼻爲之不利也”는 二章의 주요내용인 氣口에 대한 설명과 전혀 다른 문장으로 《素問釋義》의 주장이 옳다고 본다.

“凡治病 必察其下……”에 대하여 대부분 註釋家들이 ‘下’를 주로 ‘二便’으로 보았으나, 《太素》에는 ‘下’앞에 ‘上’字가 더 있고, 이는 望診을 설명한 것이며, 望診은 주로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上下’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0)홍사석; 이우주의 약리학강의, 선일문화사, 서울, 139, 1987.

參考文獻

- 1.王水：黃帝內經素問，珍倣宋版印，中華書局，1972.
- 2.張介賓：原本類經，大星文化社，서울，1982.2
- 3.任應秋：黃帝內經章句索引，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6.
- 4.程士德：素問注釋匯粹，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 5.朴奩 譯：國譯類經，大星文化社，서울，1984.
- 6.楊上善：黃帝內經太素，大星文化社，서울，1986.
- 7.林億：補注黃帝內經素問，中華書局，台北，1966.
- 8.郭靄春：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天津科學技術出版社，天津，1981.
- 9.河北醫學院：黃帝內經素問校釋，人民衛生出版社，北京，1982.
- 10.馬蒔·張志聰：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台聯國風出版社，台北，1977.
- 11.吳崑：黃帝內經素問吳註，山東科學技術出版社，北京，1983.
- 12.高世棫：黃帝內經素問直解，科學技術文獻出版社，北京，1985.
- 13.北京中醫學院：內經釋義，上海科學技術出版社，上海，1982.
- 14.琴垞樹：黃帝內經中 素問·上古天真論과 四氣調神大論에 대한 연구, 이리, 圓光大學校 大學院, 1985.
- 15.琴垞樹：黃帝內經中 素問·陰陽應象大論에 대한 연구, 이리, 圓光大學校 大學院, 1990.
- 16.鄭東柱：黃帝內經中 素問·靈蘭秘典論에 대한 연구, 이리, 圓光大學校 大學院, 1991.
- 17.張三植 編著：大漢韓辭典，集文堂，서울，1975
- 18.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醫史文獻篇)；漢醫學大辭典，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서울，1985.
- 19.李熙昇編著：國語大辭典，民衆書林，서울，1990.
- 20.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編；中醫大辭典，人民衛生出版社，북경，1982.
- 21.民衆書林編輯局編；漢韓大字典，民衆書林，서울，1989.
- 22.金元中 編著；虛詞辭典，玄岩社，서울，1989.
- 23.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中韓辭典，高大民族文化研究所，서울，1989.
- 24.張登本，武長春主編；內經辭典，人民衛生出版社，北京，1990.
- 25.謝 觀；東洋醫學大辭典，高文社，서울，1970
- 26.홍사석역음：이우주의 약리학강의, 선일문화사, 서울, 1987.
- 27.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南基鏞外2인)：생리학, 서영출판사, 서울, 1986.
- 28.許浚；東醫寶鑑，南山堂，서울，1976.